

남구 1억 들여 공원 단장하고 농구대 설치	→ 인근 독서실 등 “영업 방해” 반대에 구청서 립 폐가	북구 용봉동 불법 추정차 단속 CCTV 설치	→ 인근 상인들 “장사 안된다” 목청 다른 곳으로 옮겨
-------------------------------	---------------------------------------	--------------------------------	--------------------------------------

소수의 집요한 민원에 못이겨 공익 훼손하는 ‘오락가락 행정’

“합리적 행정 펼쳐라” 주민들 불만 팽배

“어린이공원 농구코트에 멀쩡하게 있던 림(Rim·원형 틀)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광주시 남구 봉선동으로 최근 이사 온 주민 A씨는 최근 초등학생 아들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농구시합을 하러 집앞 공원에 간 아들이 공만 몇 번 툭타 돌아와서는 “농구 골대랑 코트는 최근에 농구대에 붙어있어야 할 림이 없어 되돌아왔다”고 한 것이다. 농구대 림은 어디로 갔을까.

25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봉선 2지구 이마트 뒤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농구대의 림은 남구청이 지난해 때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독서실 등 인근 상가에서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결국 남구청이 ‘소리 없이’ 농구 림을 떼어버린 것이다.

남구는 불과 1년여 전인 2013년 4월 1억 1600만원을 들여 지난 2006년 조성된 이공원을 새 단장했다. 청소년 등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농구대와 농구 코트(바다) 등 체육시설을 보강한 것도 바로 이때다.

하지만, “농구공 툭기는 소리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민원이 인근 상가를 중심으로 집요하게 제기되자, 남구는 결국 두 손을 들어버렸다. 공원 내에 림을 철거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남기지 않았다. 남구 관계자는 “공원 인근 독서실에서 하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 지난해 여름쯤 농구대는 그대로 두고 림만 철거한



잇단 민원으로 농구대에 붙어있어야 할 림(Rim·동그란 링)이 남구청에 의해 철거되고 있는 모습.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시설이 일부 장사하는 사람의 영업을 위해 훼손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업소특 구청이 합리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수의 집요한 민원에 못이겨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자치단체의 사례는 불법 추정차 단속 CCTV 이설(移設)에서도 드러난다. 북구는 상권을 침해한다는 상인들의 반발로 불법추정차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불법 추정차 단속

용 CCTV는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메뚜기처럼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05년 용봉동 전남대 상대 쪽문 주변에 CCTV를 설치했지만 3년 뒤인 2008년 비엔날레 정문 주변으로 CCTV를 옮겼다.

애초 불법 추정차가 심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설치됐지만, “단속 카메라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며 상인들이 CCTV 이설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 CCTV는 비엔날레 정문 때문으로 옮겨간 뒤에도 상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또 어딘가로 옮겨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북구 문흥동 H마트 앞길에 설치된 CCTV도 이듬해 문흥지구 광장은 행 앞길로 옮겨졌지만 이곳 상인들 역시 CCTV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보호,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주민 민원에 따라 높이가 낮춰지거나 불빛이 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동구는 지난달 12일 산수동 주민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전신주에 설치된 보안등의 높이를 낮췄다. 서구도 지난 2월 가로등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가로등 밝기를 조정해야 했다. 동구 관계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애초 범죄 예방이나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맞지만, 주민 민원이 계속될 경우 구청으로선 민원인의 요구를 무작정 무시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전공의, 전남대병원 상대 통상임금 승소

법원, 9970만원 지급 판결 관련 소송 이어질지 주목

대학병원 전공의를 지냈던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당직 근무 기간 중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용)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했던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남대병원은 A씨에게 9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당직 근무 기간 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7700여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 소송과 관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병원측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통상임금은 범이 정한 도구 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일부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기로 단체협약에서 합의했다’는 병원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이 향후 비슷한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산서 산악사고 대비 훈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영석)는 지난 24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무등산 새인봉과 중심사 계곡 등에서 국립공원 등산학교 강사와 광주·전남권역 5개 국립공원사무소 안전관리팀 직원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암벽구조 훈련, 계곡구조 훈련 등 산악사고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소유권 분쟁 어디까지...

항소심도 조계종 승소...법원 “건물 철거·부지 인도” 판결 “태고종 선암사 주지 승낙받고 사용” 순천시는 불복 상고

순천 선암사 부지 내 들어선 야생차 체험관을 놓고 조계종과 순천시·태고종이 벌이는 소송전이 치열하다.

순천시가 허가도 없이 40억을 들여 선암사 부지 내 차 체험관을 지었다는 조계종 주장과 태고종 허가를 받았다는 순천시 주장, 조계종 부지가 아니라는 태고종 입장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소송과 관련, ‘순천시는 선암사 부지 내 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조계종에 인계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했다.

조계종 선암사는 지난 2011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순천시를 상대로 부지 소유권자인 조계종 허가 없이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한 바 있다.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1년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조계종·태고종 측에 재산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44억을 들여 지은 차 체험관 인계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순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선암

사 부지 4995㎡에 803.2㎡(8개동) 규모의 전통야생차 체험관을 짓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을 해왔다. 차 체험관을 찾은 관광객만 지난해 5만명이 넘었고 관련 소득도 6202만원을 벌었다. 지난 2007년부터 체험료·수강료 등을 통해 체험관이 거둔 총 수익도 4억여원에 이르렀다.

순천시는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실질적인 토지 점유자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주지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체험관을 지은 만큼 조계종에 넘길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조계종은 즉각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순천시는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계종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며 조계종 손을 들어줬다.

태고종은 가만있지 않았다. 태고종은 지난해 12월 선암사 부동산이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소속 사찰로 선암사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조계종이 태고종보다 먼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 등록을 하게 된 것을 이용해 해당 토지 소유명의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과 이들 사이에 끼인 듯한 순천시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무심코 던진 담배꽂초에...이웃집 지붕 ‘홀라당’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무심코 창문 밖으로 던진 담배꽂초가 화

재로 이어져 이웃집 지붕을 태운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손모(40)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남구 방림동 2중 주택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창문으로 담배꽂초를 던졌는데, 담배꽂초

가 담배락 아래 쓰레기 더미로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나 옆에 사는 민모(59)씨의 집 천장과 지붕 일부를 태운 혐의.

○~손씨는 경찰이 화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나오자 순순히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손씨는 경찰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술김에 버린 담배꽂초로 불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 박기용기자 pboxe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 ①신축 4층건물(총룸 13개)
- ②월세 인기좋은 /임대 걱정없음
- ③3층 점포
- ④2중~3중 원룸 10개
- ⑤4층 안집 투룸 1개

월수익 530만 매매가 7억 1천

- ① 북구 문흥동(전대후문 5분거리) 월수익 540만 매매가 8억 5천만
- ② 북구 문흥동(147) 월수익 430만 매매가 7억 4천만
- ③ 북구 용봉동(50평, 건150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
- ④ 수원지구 수원동 3중건물 신축(토144, 건260평) 매매가 16억 월수익 800만
- ⑤ 수원동 4중중 3중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 5천만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① 상무지구 수원오비 68(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 ② 상무지구 수원오비 68(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 ③ 상무지구 수원오비 68(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 ④ 서구 병천동 대문마코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 ⑤ 상무지구 정연오비 38(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 ⑥ 남구 백운동 대흥1차(24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500만
- ⑦ 동구 수7동(44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010-6832-9700

법원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1.서구 금호동 7중7층(토180㎡, 건295㎡)감정가 6억6천→ 최저가 2억3천
- 2.광산구 팔계동(토42㎡, 건135㎡)감정가 2억→ 최저가 1억4천(현단상가)
- 3.서구 지평동 (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서구 학정동(토150평, 건276평)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 2.전남 순천 인제동(토496.8㎡, 건1119.76㎡)감정가 13억→최저가 9억
- 3.담양 남면동1427평, 건1251평감정가 32억 →최저가 7억4천
- 4.서구 병천동(토63평, 건149평)감정가4억9천→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사설, 통건물)

- 1.북구 온암동(토66평, 건193평)감정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 2.동구 대인동(토780.2㎡, 건1992.57㎡)감정가 24억7천→최저가 14억
- 3.북구 오암동(토114평, 건199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2억9천
- 4.순천 4층건물(토205평, 건221평)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3억

공방/모텔/주유소

- 1.북구 오암동(토46평, 건182평)감정가 12억7천→최저가 12억7천
- 2.전남 장성 북면동(토285평, 건64평)감정가 41억 →최저가 15억

직원 구함

남,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뿐!!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 1.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평,건276평) 1층주택(104기)2층음식점 3층도래연습장/4층주방 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 2.북구 온암동 (근린사설) (토 160평,건283평) 개발기확충권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나) 감정가 8억5천 →최저가 5억9천7백
- 3.광산구 신기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신기동역 북동측 인근, 하남대로변 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1억
- 4.동구 대인동(근린사설)토236평,건602평 (은행소방서,우체국주변상권중음) (지하사무실/1층점포/2층~4층사무실) 감정가24억7천→최저가14억
- 5.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사설/현선) (토1427평,건1251평) 개발기확충권투자적합 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010-6670-9800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

062-382-5500
010-6832-9700